

“길거리 마술로 관객에게 작은 놀라움 선물하고파”

‘광주 마술 버스킹’ 이우찬·황주찬씨

중학시절 독학으로 마술 배워…충장로·동명동 일대서 공연
“현장서 사람 만나고 눈 맞추는 게 좋아…매직바 운영이 꿈”

“제가 지금부터 이 분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맞춰볼게요.”

그가 숫자를 한 자리씩 누르자 잠겨 있던 휴대폰 화면이 열렸다. 수습장의 카드에서 관객 한 사람이 지목한 카드도 정확히 찾아내자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복직이는 충장로 거리는 어느새 젊은 마술가들이 소박한 꿈과 열정을 펼치는 무대로 변신했다.

길거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버스킹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마술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마술 팀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부터 ‘광주마술버스킹’을 꾸려 활동 중인 이우찬(25), 황주찬(23)씨다. 두 사람은 카드 한 벌, 로프 한 줄과 능숙한 입담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이 느낀 신기한 감정을 누군가에게도 전해 주고 싶어 마술을 시작했다. 우찬 씨는 사

람의 심리와 선택을 읽는 멘탈마술이 주전공이고, 주찬 씨는 무대마술 중 로프·카드마술을 선호한다.

“관객보다 헤클러(Heckler·편지거는 관객)가 더 많은 날 의욕을 잃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고 관객과 호흡하는 현장감”이라고 말했다. 우찬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 있는 모든 마술을 한 번씩 연습하는 게 하루 일과”라며 “마술의 매력은 관객과 바로 호흡하는 현장감”이라고 말했다.

주찬 씨 역시 “매번 새로운 관객을 만나 실전에서 배우는 게 많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작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계속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두 사람은 중학생 때부터 유튜브와 독학으로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상과 자료를 참고하며 홀로 연습했지만 점차 마술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실력을 키워갔다. 2018년 무렵부터는 친구들과 무대를 찾아 직접 거리로 나섰다. 2022년까지 충장로와 동명동 일대에서 본격적인 거리 마술 공연을 시작했다.

친구들이 취직하며 하나 둘 떠나는 사이 두 사람은 ‘마술’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팀을 결성하고 지난 4월부터 다시 충장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건, 언젠가 아늑한 공간에 위스키바와 매직쇼를 결합시킨 ‘매직바’를 열어 손님에게 마술과 일상을 함께 건네는 일이다.

“이제는 어디부터 연습이고 어디까지 실전인지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마술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손에 든 마술 도구를 만지작거리고,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고민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에 올라온 마술을 즐겨 마술사들이 인



‘광주 마술 버스킹’ 이우찬(왼쪽)·황주찬씨.

타넷을 통해 마술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현장에서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고 눈을 맞추며 선보이는 마술이 더 재밌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다양한 마술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목포해양대, 광주·전남 단체인혈 최우수 대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은 4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를 2024년 및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단체인혈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다. <사진> 목포해양대는 2024년 684명, 2005년 5월 31일 현재 278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등 광주전남 대학교

중 가장 많은 단체 헌혈자를 모집하며 지역 혈액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최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2606매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증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북초, 모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북초등학교(교장 이영수)는 4일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익히고,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용강들 북초록이들의 희망 노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학생들은 정영을 전수자와 함께 지역 전통 노동요 ‘용강들노래’를 부르며, 징소리와 장구 장단

에 맞춰 4박자에 맞춰 한 줄로 늘어서 모를 심었다. 광주북초는 농촌사와 밭농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또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장협의회 세미나 개최



광주·전남지역대학원장협의회(회장 송경용) 동신대 대학원장 겸 부총장) 춘계 세미나가 최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2층 글로벌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동신대 제공>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 개소 1주년 행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개소 1주년을 맞아 최근 청정팍스(청년정책 팝업스토어)를 성형리에 진행했다. <광주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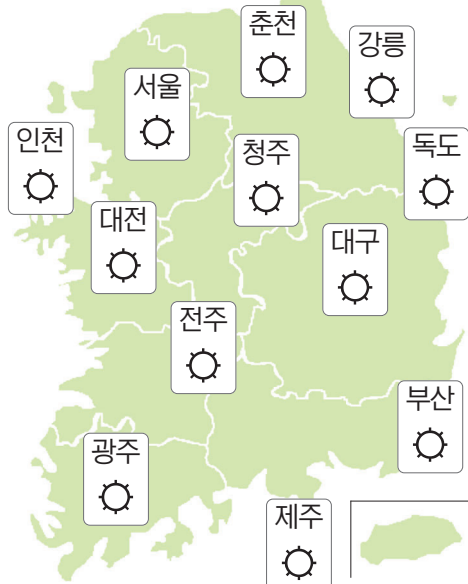
해뜨	05:18	달뜨	14:16
해짐	19:44	달짐	01:40

한낮 초여름 무더위

낮밤 기온차 15도 이상 커요.

광주	맑음	15/28	보성	맑음	11/27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4/28
여수	맑음	17/26	영광	맑음	13/27
나주	맑음	12/28	진도	맑음	13/26
완도	맑음	15/28	전주	맑음	14/28
구례	맑음	12/28	군산	맑음	14/25
강진	맑음	13/28	남원	맑음	12/28
해남	맑음	12/28	흑산도	맑음	15/23
장성	맑음	11/2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물때

	간조	만조
	02:35 15:18	09:31 22:20
여수	10:57	04:27
	23:25	17:38

◇생활지수

미세먼지	나쁨
------	----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17/29	19/28	19/30
9(월)	10(화)	11(수)
19/30	20/29	20/29

생활 게시판

화촉

▲김문자씨 아들 정용원군, 서광섭·김인희씨 딸 현정(광주일보 전남여초특화지원센터 사원)양=6월 14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2층 라벤더홀

알림

▲제48회 재광화순군향우회 정기총회=5일 오후 6시30분, 광주염주체육공관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 010-9606-0992.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되리라. 48년생 구관이 병관이요, 노물이 새것보다 낫겠다. 60년생 적극적으로 행하여 성과가 클 것이다. 72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84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96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52



丑

37년생 드러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49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73년생 노력 앞에서는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85년생 유동적이나 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97년생 궁극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81



寅

38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5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62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74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86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98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행운의 숫자 : 92, 66



卯

39년생 저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51년생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볼 일이다. 63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 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75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99년생 예의 주시라. 행운의 숫자 : 26, 87



辰



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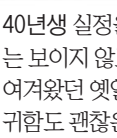


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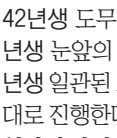
未

6월 5일(음 5월 10일 乙巳)



申

40년생 실정을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52년생 목직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면환만 나타난다. 64년생 다 지나 간 것으로만 여겨왔던 옛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76년생 원래 상태로 회귀해도 괜찮은 국량이 될 것이다. 88년생 차이로 인한 변화를 것이다. 00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히 잡아라. 행운의 숫자 : 49, 55



酉

41년생 상호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53년생 덕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감성을 부르리라. 65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도다. 77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89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01년생 시외로 빨리 처리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17, 64



戌

42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 차 있다. 66년생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유익하다. 78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90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02년생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행운의 숫자 : 23, 51



亥



子



丑



寅



卯

43년생 명확한 징후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말라. 5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리라. 67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79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91년생 차별화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03년생 체면 차례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82

44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56년생 자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8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80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92년생 당면 과제에 매진함이 기쁨을 줄 것이다. 04년생 안정된 궤도로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06, 83

45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57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라. 69년생 재물이요 좋아질 것이니 기회가 오면 의심하지 말고 수용하라. 81년생 규칙적이라야만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93년생 마무리까지 잘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05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91

46년생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 58년생 기존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70년생 불완전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82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출렁출렁 매달려 있다. 94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06년생 여명에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5, 50

47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59년생 기회가 제대로 왔으니 기탄없이 역량을 발휘하라. 71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보아라. 83년생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95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07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역전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60